

# 최소이론에서의 논항구조

송 석 홍

## 1. 머릿말

문장을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어휘범주는 동사와 같은 서술어(predicate)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어떤 문장의 서술어가 주어지면, 그 서술어의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논항(argument)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서술어에 의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논항의 종류와 수에 관한 범위를 규정한 구조를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라 한다.

본고는 1981년에 제기된 지배결속이론(GB)을 발전, 단순화시켜 1992년에 내놓은 Chomsky의 최소이론(minimalist theory) 하에서 하나의 논항구조 이론을 정립시켜 보려는 조그만 시도이다. 우선 Larson(1988)의 논항구조 이론중에서 유일보어 가설(Single Complement Hypothesis)이 얻지 못하는 논항과 부가어의 통사적 구분을 최소이론의 격점검 장치(Case checking mechanism)를 이용하여 얻는 과정을 다뤄 보고, 다음에는 Hale & Keyser(1991)의 논항구조 이론 중에서 어휘 관계 구조(Lexical Relational Structure)를 통사부에 통합시킴으로써 그들이 얻지 못하는 통사부의 통일성(uniformity of syntactic structure)과 동사구내주어 가설(VP-internal Subject Hypothesis)을 포착할 수 있음을 심도있게 설명해 본다.

그럼으로써 간결해진 최소 핵계층구조(minimal X-bar structure)를 갖고 그 구조 자체에서 대부분의 의미역을 포착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론적 방편만을 설정하는 논항구조 이론을 얻어 보고자 한다.

## 2. 유일보어 가설(Larson, 1988)

### 2.1 무제한 외곽구조(Unrestricted Shell Structure)

Larson (1988)은 (1)-(2)와 같은 중목적어 구문과 여격구문 속의 통사적 영역의 비대칭성(asymmetries in syntactic domain)을 함께 포착하기 위해서 (3)과 같은 유일보어 가설을 제안하였다.

(1) a. I showed Mary<sub>i</sub> herself<sub>i</sub>.<sup>1)</sup>

---

1) 성분통어에 의한 두 목적어간의 비 대칭성을 나타내는 예문들은 위 외에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b. \*I showed herself<sub>i</sub> Mary<sub>i</sub>.

(2) a. I showed Mary<sub>i</sub> to herself<sub>i</sub>.<sup>2)</sup>

b. \*I showed herself<sub>i</sub> to Mary<sub>i</sub>.

(3) XP → ZP X'

X' → X YP

중목적어 구문 (1) 속에서는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c-command) 해야 결속이론 (A)<sup>3)</sup>가 만족되는 반면, 여격구문 (2) 속에서는 직접목적어가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여야 역시 결속이론이 만족될 수 있는 비 대칭성이 나타나는데, 이를 Larson은 위 (3)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동사 외곽구조(VP-shell structure) VP<sub>1</sub>을 도입하여 잘 포착하고 있다.

(1) I gave every worker<sub>i</sub> his<sub>i</sub> paycheck. (quantifier binding)

\* I gave its<sub>i</sub> owner every paycheck<sub>i</sub>.

(2) Which man<sub>i</sub> did you send his<sub>i</sub> paycheck?(weak crossover)

\* Whose<sub>i</sub> pay did you send his<sub>i</sub> mother?

(3) Who did you give which paycheck?(superiority)

\* Which paycheck did you give who?

(4) I showed each man the other's socks. (each ... the other)

\* I showed the other's friend each man.

(5) I showed no one anything. (negative polarity item)

\* I showed anyone nothing.

[from Barss and Lasnik(1986)]

2) 직접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사이의 성분통어에 의한 비 대칭성을 나타내는 기타 예문들이다.

(1) I gave every check<sub>i</sub> to its<sub>i</sub> owner. (quantifier binding)

\* I gave his<sub>i</sub> paycheck to every worker<sub>i</sub>.

(2) Which check<sub>i</sub> did you send to its<sub>i</sub> owner?(weak crossover)

\* Which worker<sub>i</sub> did you send his<sub>i</sub> check to?

(3) Which check did you send to who?(superiority)

\* Which did you send which check to?

(4) I sent each boy to the other's parents. (each ... the other)

\* I sent the other's check to each boy.

(5) I sent no presents to any of the children. (negative polarity items)

\* I sent any of the packages to none of the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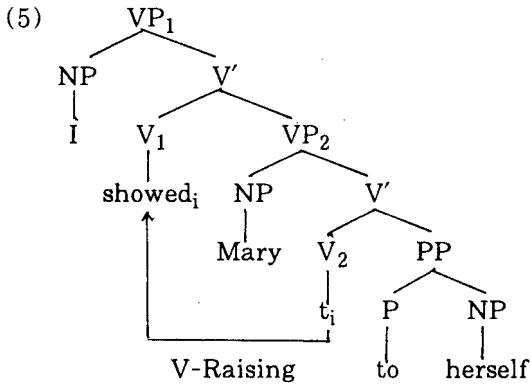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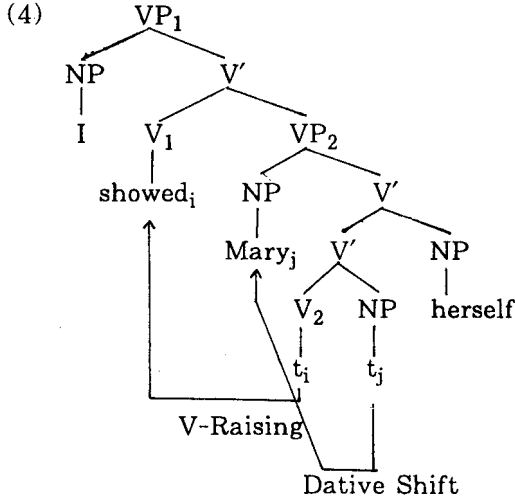
[form Larson(1988)]

3) 결속이론

(A) An anaphor must be bound in its governing category.

(B) A pronominal must be free in its governing categ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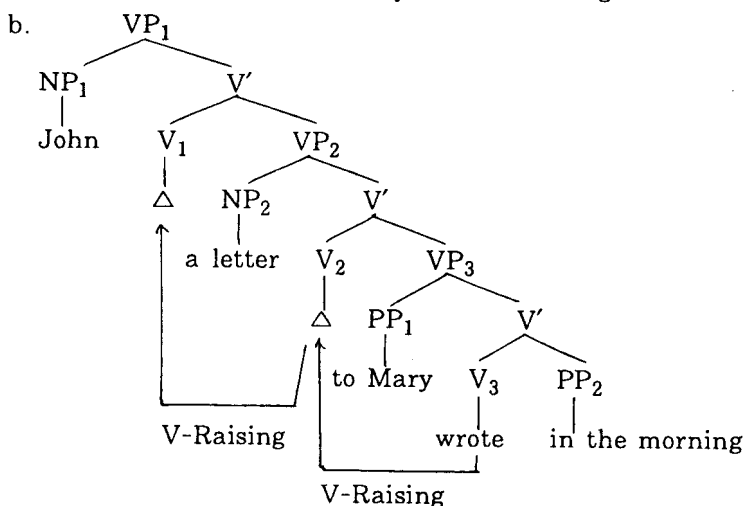
(C) An R-expression must be free.



Larson은 세 논항을 동사구 내에 나타내기 위해 VP<sub>1</sub>이라는 동사 외곽구조를 설정하여 VP<sub>2</sub>와의 관계를 동사인상(V-Raising)으로 처리하고, 중목적어 구문을 여격구문에서 유도함으로써 기존 이론들이 잘 포착치 못했던 두 구문 속의 두 보충어 논항(Mary, herself) 간의 비 대칭적 결속 관계를 잘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Larson(1988)은 두 보어 논항 간의 성분통어 관계에 너무 집착 하다 보니 다음과 같이 논항과 부가어의 통사적 구분을 흐려 놓고 말았다.

(6) a. John wrote a letter to Mary in the morning



그는 부가어 *in the morning*을 동사의 보충어인 논항자리 PP<sub>2</sub>에 둬으로써, 논항(*John, a letter, to Mary*)과 부가어(*in the morning*) 간의 통사적 구분을 포착하지 못하고 말았다.<sup>4)</sup>

물론 Larson(1988)은 이런 부가어들이 동사의 목적어 밑인 논항자리에 와야만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들고 있다.

(7) a. John visited *few* friends *any* day this week.

b. \*John visited *anyone* *few* days this week.

(8) a. \*John filed them without reading *Mary's* articles.

b. \*Max burned *it* although Bill had given him *the* present.

(9) a. I interviewed *Max* after *Mary* brought *him*, and you Felix.

(“I interviewed Max after Mary brought Max, and you interviewed Felix after Mary brought Max” (STRICT) or “I interviewed Max after Mary brought Max, and you interviewed Felix after Mary brought Felix” (SLOPPY))

b. I interviewed a friend of *Max* after *Mary* brought *him*, and you Felix. (≠ “I interviewed a friend of Max after Mary brought Max, and you interviewed Felix after Mary brought Felix”. (SLOPY))

Larson은 (7)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정 극성 어휘(negative polarity item) *any*가 부

4) Larson(1988: fn 11, pp.345-346; pp.349-350; p.382; fn 49, p.384)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Time and manner PPs are not outermost adjuncts as is standardly assumed but rather must be innermost compl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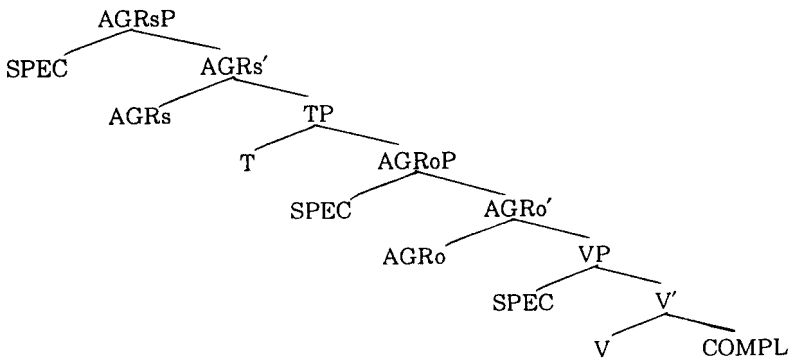
정어 *few* 같은 것에 결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가어 *any day this week*을 목적어 아래의 보충어 논항 위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의 경우는 지시적 표현(R-expression)인 *Mary's article*이나 *the present*가 앞의 대명사에 결속되어서 결속이론(C)를 위배하는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시적 표현을 담고 있는 부가어가 보충어 논항 위치에 와야 하며, 끝으로 (9)의 경우는 (9a)가 약식의미(sloppy reading)를 갖는 것은 *him*이 *Max*에게서 성분통어 되기 때문이고, (9b)가 약식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은 *him*이 *Max*에게서 성분통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him*이 들어 있는 부가어를 보충어 논항 위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 구문 속의 성분통어 관계를 포착기 위해서는 부가어를 보충어 논항 위치에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2.2. 유일 외곽구조 가설(Single Shell Hypothe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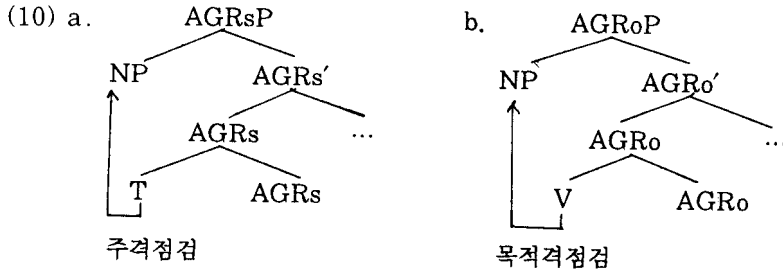
본고는 Larson에 의해서 얻어진 중목적어 구문과 여격 구문속의 통사적 영역의 비대칭성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Larson이 흐려놓은 논항과 부가어의 통사적 구분을 얻기 위해서 외곽구조는 하나이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이 논거로서 최소이론의 격 점검 장치와 서술화 이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2.1. 최소이론의 격 점검장치에 의한 분석

최소이론에서는 두가지의 구조격 즉, 주격과 목적격의 배당이 아래와같이 지정어-핵(SPEC-head) 관계로 통합된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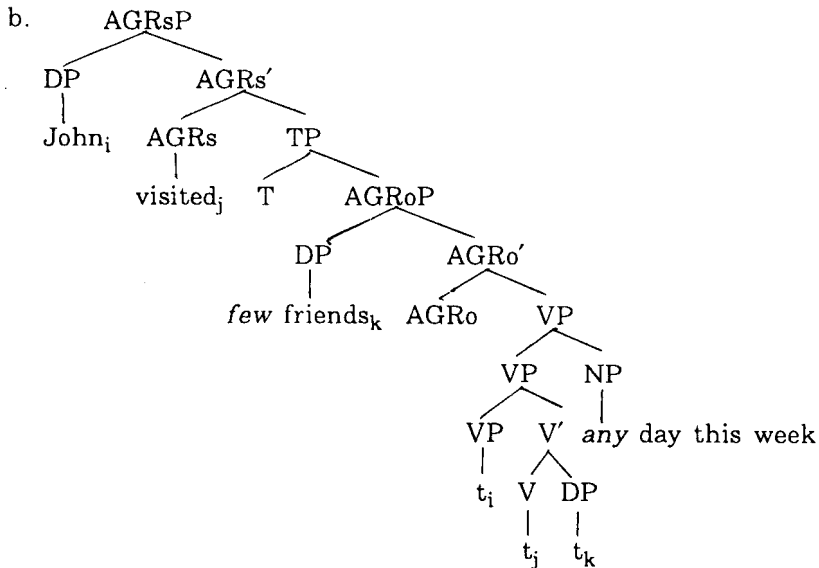
5) Chomsky(1992)는 Pollock(1989)의 제안을 받아들여, 굴절소(INFL)는 일치 (AGR)와 시제 (T)의 두개의 별도 핵으로 분리가 되며, 이들 핵은 그 자신의 최대투사범주를 형성하고, AGR은 다시 주어들을 위한 AGRs와 목적어를 위한 AGRo로 구분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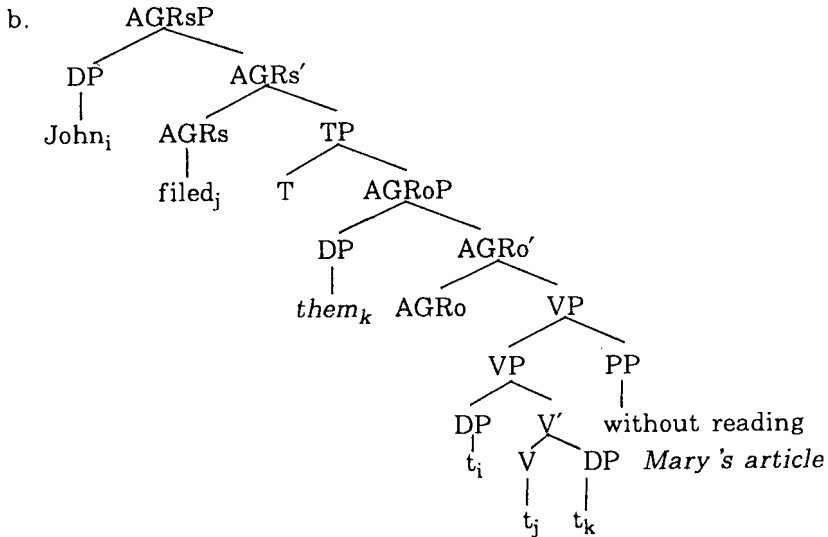
문자화(SPELL-OUT) 전에 T의 지정어 자리를 거쳐 AGRs의 지정어 자리로 논항 이동된 NP자리의 명사에는 역시 문자화 전에 AGRs로 핵이동된 T의 명사자질(N-feature)에 의해 주격이 부여된다. 즉 T의 명사자질은 강하므로(strong) T가 문자화전에 AGRs로 핵이동한다. 그러나 목적어에 대한 목적격의 부여는 논리형태(LF)에서 이루어진다. 즉, 논리형태에서 동사가 T를 거쳐 AGRs에 핵이동되기 직전에 AGRo에 핵이동되고 목적어는 AGRo의 지정어 자리로 논항 이동되어 올라가 AGRo와 결합한 동사가 자신의 명사자질(N-feature)을 통해 목적어에게 목적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논리형태에서는 목적어가 격을 (점검)받기 위해서 AGRo의 지정어자리로 이동하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이 장치를 이용하여 논리형태에서 결속이론을 적용시킴으로써, 앞에서 Larson이 제기한 목적어 논항이 부가어나 부가어 속의 요소를 성분통어하는 관계를 논리형태에서 잘 포착할 수 있고 아울러 동사구 구조내에서는 부가어를 동사구에 부착시킴으로써 Larson이 포착치 못하는 논항과 부가어 간의 통사적 구분을 아래와 같이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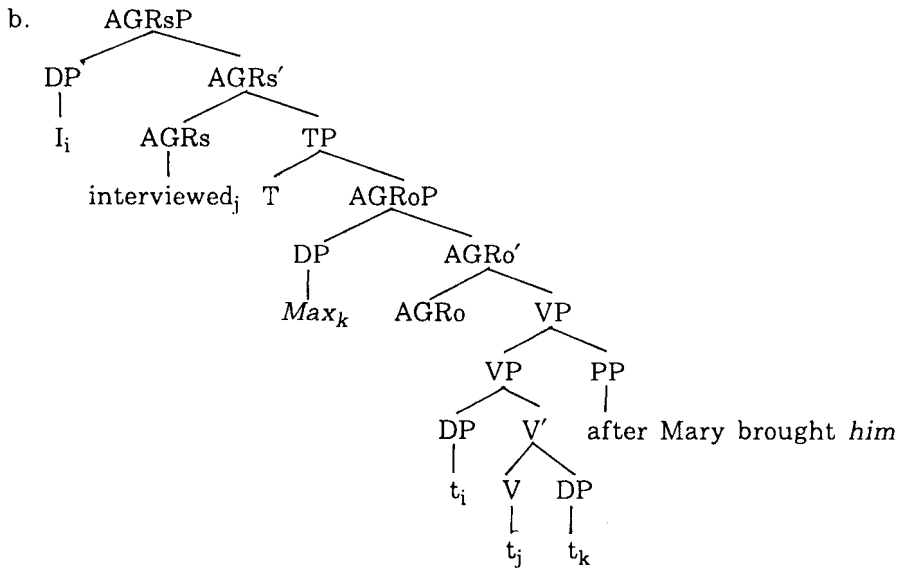
(11) a. John visited few friends any day this week.



(12) a. \*John filed *them* without reading *Mary's articles*.



(13) a. I interviewed *Max* after *Mary brought him*, and you Fel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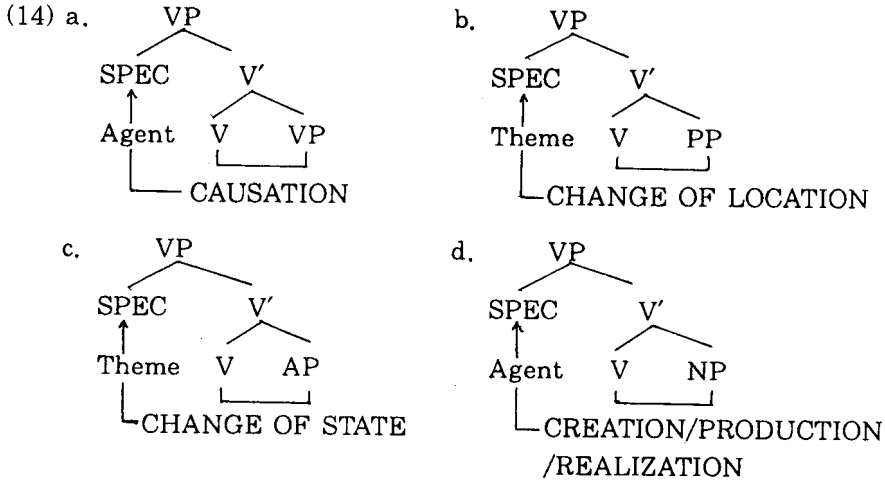


Larson 자신이 부가어가 보충어 논항 자리에 올 수 밖에 없다는 증거로 제시한 세 예문을 본고에서는 위 (11)-(13)에서 보는 것 처럼, 부가어를 동사구에 부착시켜 처리하고, 논항은 동사의 지정어나 보충어 자리에 둬으로써 논항과 부가어간의 통사적 구분을 포착하고, 목적어가 부가어나 부가어 속의 명사를 성분통어 하는 것은 이 목적어가 AGRo의 지정어 자리에 올라간 격 점검 구조에 적용시킴으로써, 결속관계를 잘 포착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로써 우리는 Larson(1988)이 얻지 못하는 논항과 부가어간의 통사적 구분을 최소이론의 논항구조 이론으로 포착해 보았다.

## 2.2.2 서술화 이론에 의한 분석

Hale & Keyser(1991)는 Larson(1988)의 동사 외곽구조를 받아들여 (동사 인상으로 생긴 동사의 흔적(trace)을 경동사(light verb)로 간주하여)<sup>6)</sup> 다음과 같이 새로운 의미 서술화(thematic predication)를 제안하고 있다.



즉, (14b, c)의 경우 지정어 자리에 오는 명사는 상위문으로 이동해 간 동사의 흔적이 경동사 즉, 영어의 Be 동사와 같은 구실을 함으로 뒤에 오는 술어 PP나 AP에게서 자신의 자리를 허가(licensing)받고 그들로 부터 각각 의미역을 받게 된다. (14a, d)의 지정어 자리 명사는 다른 VP나 NP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 그 자체로부터 각각 지정어 자신이 허가를 받고 의미역도 받는다는 것이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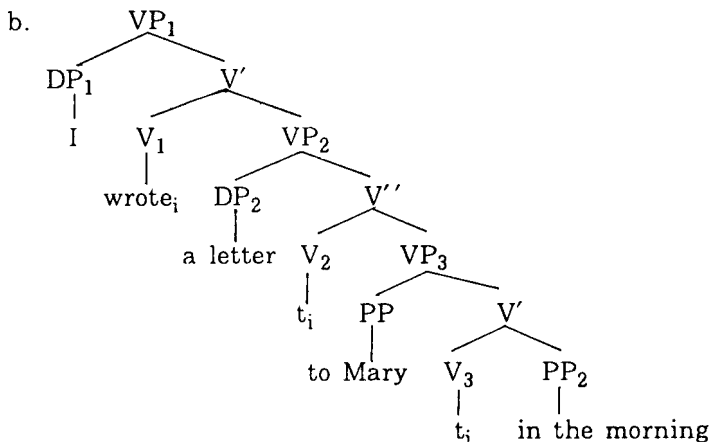
본고는 이러한 그들의 서술화 이론을, 논항과 부가어의 통사적 구분을 흐리는 Larson의 무제한 순환(unrestricted recursion)이 적절치 못하다는 또 하나의 논거로 사용해 보고자 한다.

6) Hale & Keyser는 경동사를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동사란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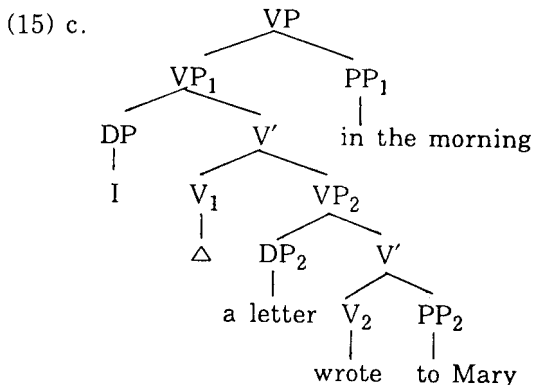
7) Hale and Keyser는 실제로는 어휘 관계 구조(LRS) 속에서는 (14b, c)처럼 PP와 AP만이 서술화가 가능한 보어로 보고 그들의 SPEC만을 인정하고 있다. (14a, d)의 SPEC은 LRS이후 구조인 통사구조의 IP 자리에 삽입시켜서, 비 어휘적인 방법으로 의미역을 부여하면서도 그들이 그린 의미 서술화 그림속에서는 (14a, d) 모두 SPEC을 인정하고 있다.



(15) a. I wrote a letter to Mary in the morning.



위 Larson의 예문을 Hale & Keyser의 서술화 이론으로 분석해보면 DP<sub>1</sub>인 *I*라는 논항은 동사 *wrote*에서 허가 받고, 논항 PP<sub>1</sub> *to Mary*는 PP<sub>2</sub>라는 술어로부터 허가받아 존재가 가능하지만, 논항 DP<sub>2</sub> *a letter*는 VP자체가 서술화의 술어 자격이 없으므로 VP<sub>3</sub>로부터 자신의 존재허가나 의미역을 받지 못하게 되어 비문이 되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서술화 이론은 Larson의 동사 외곽구조를 하나로 다음과 같이 제한할 때 논항과 부가어의 통사적 구분을 연계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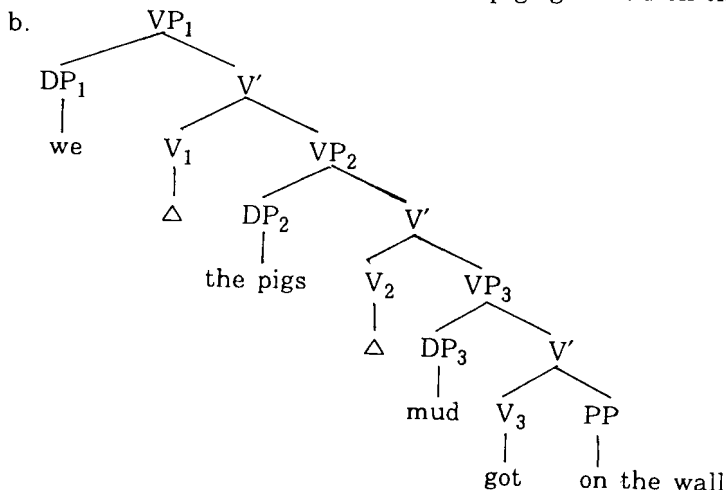


즉, 부가어 *in the morning*을 동사구에 부착시키고, 논항 *I*, *a letter*, *to Mary*를 지정어나 보어 자리에 둬으로써, *I*는 인상된 동사에게서, *a letter*는 PP<sub>2</sub>에게서 각각 허가를 받고 의미역도 받게 됨으로 정문으로 옳게 판명된다. 물론 적용 영역간 결속관계는 논리형태에서 목적어가 부가어보다 높게 상승된 상태에서 적용함으로 앞에서 설명된 것처럼 성분통어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Hale & Keyser의 의미 서술화를 사용하면, 영어에서 왜 삼중 보충어 구문(겹사역 구문: lexical double causative)이 없는지도 잘 설명할 수 있어 Larson의 무제한 순환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도와주게 된다.

(16) a. \*We got the pigs mud on the wall.

(cf. We brought it about that the pigs got mud on the wall.)



Larson의 무제한 순환식의 분석에서 보면, 일단 보어 논항이나 부가어가 한 두개씩 늘어날 때 마다 외곽구조를 계속 무제한으로 한 두개씩 더 그려 나타내고, 이로써 논항이나 부가어의 통사적 구분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이 주장은 당장 (16b)가 왜 비문인가를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16b)의 수형도는 Larson(1988)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Hale & Keyser(1991)를 이용한 본고의 유일 순환(single recursion), 즉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하나만의 동사 외곽구조 설정 방법은 DP<sub>1</sub> *we*가 인상된 동사 *got*에서, DP<sub>3</sub> *mud*는 술어인 PP *on the wall*에서 각각 존재 허가를 받지만, DP<sub>2</sub> *the pigs*는 VP가 서술화의 한 술어가 되지 못해서 VP<sub>3</sub>로 부터 존재허가를 받지 못해 (16a)가 비문이 되어 영어에 왜 삼중 보충어 구문이 없는가도 자연스럽게 설명한다.

### 3. 어휘 관계 구조(Hale & Keyser, 1991)

#### 3.1. 어휘 관계 구조와 통사부

Hale & Keyser(1991)는 (17)-(18)같은 문장들의 문법성과 비문법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각각 (19)-(20)과 같은 어휘 관계구조를 통사부 와는 별도로 어휘부에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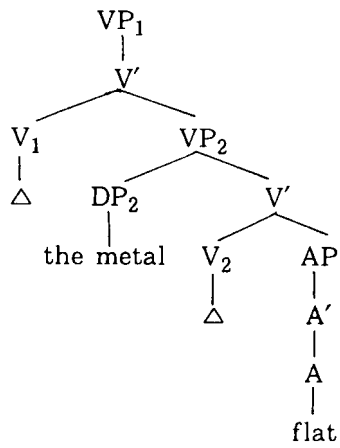
(17) a. We flattened the metal.

b. \*We metallated fl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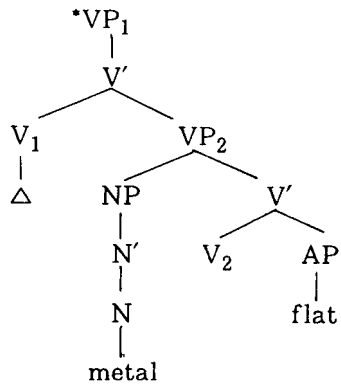
(18) a. \*The clown laughed the child.

b. The child laug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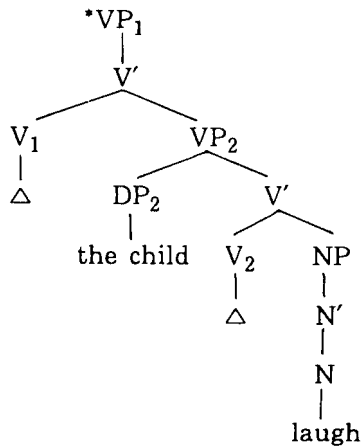
(19)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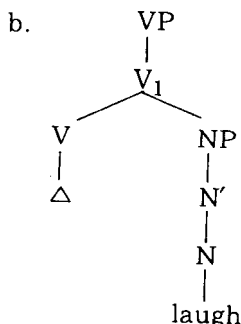


b.



(20) a.





(17a)가 정문인 것은 이것의 어휘 관계 구조인 (19a)에서 A인 *flat*가  $V_1$ 자리까지 융합(incorporation)되어 올라 갈때 핵 이동 제한(Head Movement Constraint)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고,<sup>8)</sup> (17b)가 비문인 것은 이것의 어휘 관계 구조인 (19b)에서 N인 *metal*이  $V_1$ 자리로 융합되어 올라갈 때 바로 핵 이동 제한을 어겼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또한 (18a)가 비문인 것은 어휘 관계구조 상에서 NP가 서술화의 술어가 되지 못함으로, 어휘 관계 구조 (20a)에서  $DP_2$  *the child*가 NP *laugh*으로부터 존재 허가를 받지 못해 비문이고, (18b)가 정문인 것은 어휘 관계구조 (20b)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통사부에 들어와서 IP에 주어 *the child*를 삽입한 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분석은 (19)에서 보는것 처럼 어휘부의 어휘 관계 구조에 통사 규칙을 그대로 적용 함으로 그들 자신의 지적 처럼<sup>9)</sup> 어휘부에도 또 하나의 통사론을 인정하여 통사부의 통일성(uniformity of syntactic structure)을 상실하고 있고, (19)-(20)에서 보는 것 처럼 지배결속이론이나 최소이론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는 동사구내주어 가설(VP-internal Subject Hypothesis)을 포착하지 못하고 모두  $VP_1$ 의 지정어 자리를 비워 두었다가 통사부에서 IP에 삽입해야 하는 두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들이 어휘 관계 구조에서 하던 일도 이어 받고 위에서 제기한 통일성이나 가설도 포착해 보기 위해서 어휘 관계 구조를 통사부에 흡수시키는 방안을 두 가지로 제시해 보고 나중의 방법이 우위적일 수 있음도 보이고자 한다.

### 3.2. 어휘대체에 의한 통합(Lexical Replacement)

어휘부에서 하던 일을 통사부로 옮겨 오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사 여과(Affix Filter)와 어휘 대체 규칙(Lexical Replacement Rule)을 제안한다.

8) The Head Movement Constraint(from Travis, 1984; Baker, 1988)

An  $X^0$  may only move into the  $Y^0$  which properly governs it.

9)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We have used the phenomenon of conflation as a probe into the inner organization of lexical argument structure, concluding that argument structure(i.e. , LRS) can be properly viewed as a syntax. And accordingly, It is subject to the laws of syntax, as known generally, and, in particular, it is subject to the principles determining the grammatical uses of head movement(Baker,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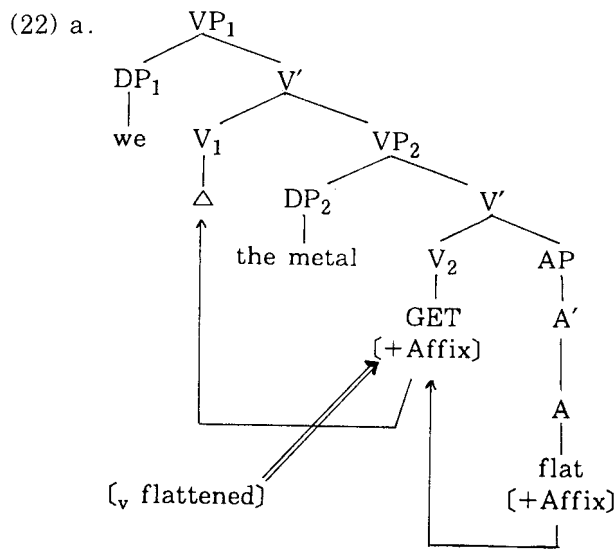
(21) a. 접사여과

[+접사]의 자질을 가진 요소는 [-접사]의 자질을 가진 요소와 결합해야 한다.  
10)

b. 어휘 대체 규칙

추상적인 어휘 자질을 갖는 요소는 어휘부의 완전어휘 항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sup>11)</sup>

이들을 이용해서 위의 Hale & Keyser의 어휘 관계 구조 (19)-(20)을 통사부에 통합시키면 다음과 같은 수형도가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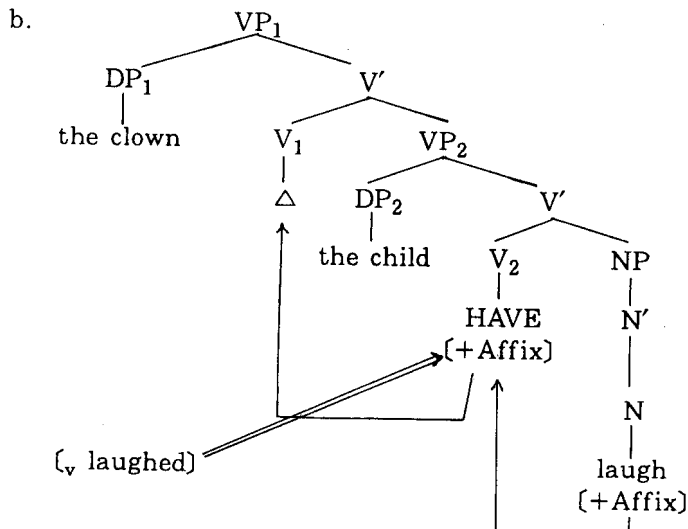


10) Affix Filter

An element with [+Affix] must be supported by an element with [-Affix] through adjunction.

11) Lexical Replacement Rule

An element with an abstract lexical feature is replaced by a lexical item from the lexi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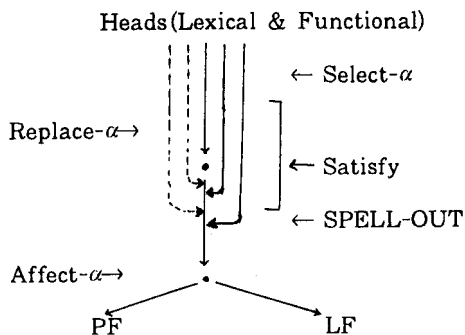


(22a)의 경우 *A flat*와 *V GET*은 어휘부에서부터 [+접사]자질을 지니고 나온다고 가정하고 순서대로 *flat*이 *GET*에 붙고 이들이 함께 어휘 대체 규칙에 의거하여 동사인 *flattened*로 대체됨으로써 접사 여과를 만족시키고, 이후 최소이론내의 경제원리인 이기성 (Principle of Greed)을 만족시키기 위해  $V_1$ 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이 완료된다.<sup>12)</sup> 그러므로 본고는 최소이론의 통사부 속에다 어휘부의 어휘를 뽑아 대체시키는 장치를 설정해 놓고 있다.<sup>13)</sup> 이로써 (17a)의 문법성은 설명이 되었고, (17b)의 경우는 (22a) 그림에서 *metal*을  $V_1$ 으로 융합시켜 만들어진 문장인데, 이때는 술어 AP로부터 그 존재를 허가받고, 의미역을 받아야 하는  $DP_2$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서술화 이론을 어기는 비문이 된다. (22b)의 경우는 가정상, 어휘부에서 [+접사] 자질을 지니고 나온 명사 *laugh*가 *HAVE*에 붙어 동사 *laughed*로 대체 됨으로써 접사 여과를 준수하지만 NP 자신이 서술화의 술어가 되지 못

12) Principle of Greed

Move- $\alpha$  applies to an element  $\alpha$  only if morphological properties of  $\alpha$  are satisfied by that movement.

13) 이 장치가 바로 Replace- $\alpha$  이고 아래 그림의 위치에 적용된다.



해 DP<sub>2</sub>의 존재를 허가 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의 V<sub>1</sub>으로의 융합이 불가능 하고 DP<sub>2</sub>는 대체 된 동사 그 자체에서 존재 허가과 의미역을 받으므로 (18a)는 비문, (18b)는 정문으로 잘 설명이 된다.

이로써, 본고는 Hale & Keyser가 어휘 관계 구조를 설정해서 얻었던 구조적 의미역 할당 (14)도, (17)-(18)에서 처럼 영어에서 어떤 논항구조들이 가능하고 또 가능하지 않는가도 유지하고, 그들이 얻지 못했던 통사부(통사구조)의 통일성과 동사구내주어 가설을 포착할 수 있음도 보여 주었다.

### 3.3. 어휘 점검에 의한 통합(Lexical Chec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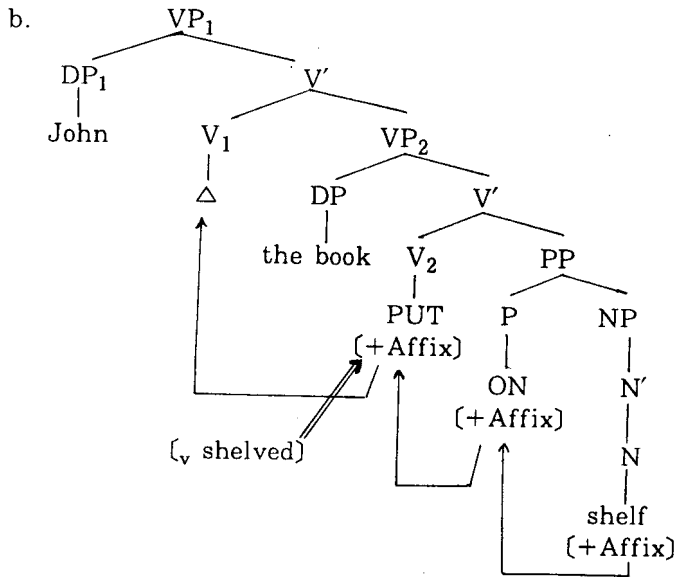
이번에는 어휘 대체에 의한 통합의 어휘 대체 규칙마저 없애 좀 더 영 가설(Null Hypothesis)에 접근하기 위해, Chomsky(1992: 39-40)의 생각을 구체화시킨, 어휘 점검에 의한 통합 방법을 제안해 본다.

최소이론에서는 모든 문법적 작용은 어떤 형태론적 자질(morphological feature)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실행된다. 즉 어떤 형태론적 자질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는 문법적 작용(grammatical operation)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들면, AGRs는 주어의  $\phi$ -자질을 점검하며, T는 주어의 주격과 동사의 시제 자질을 점검한다.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면 점검을 해 준 쪽의 자질은 사라지고 점검을 당한 쪽의 자질만 살아남는다.<sup>14)</sup> 그래서 격의 경우 AGRs의 지정어자리에 온 주어는 어휘부에서 주격을 가지고 오지만, AGRs에 온 T의 N-자질에 의해 격을 점검 받아야 비로서 주격이 결정되게 되고, AGRo의 지정어 자리에 온 목적어의 격은 어휘부에서 목적격을 가지고 오지만 AGRo에 올라온 동사의 N-자질에 점검을 받아 N-자질은 사라지고 목적어의 목적격만이 살아 남게되어 격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제 본고에서는 이러한 형태론적 자질 점검 장치(mechanism)를 다음과 같이 어휘 대체에 의해 유도(derivation)된 문장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14)  $\phi$ -자질은 인칭(person), 수(number)와 성(gender) 자질들을 말한다.

(23) a. John shelved the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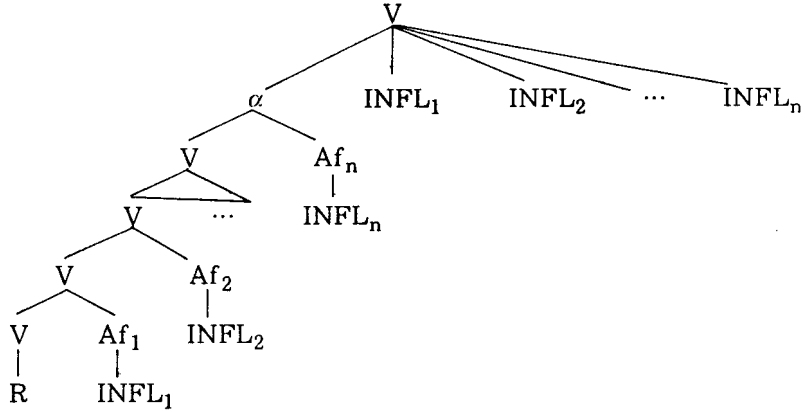


Chomsky(1992: 39-40)는 굴절소를 갖는 어휘들은(inflected words) 어휘부에서 부터 (24b)와 같은 구조를 안고 나온다는 생각을 (24a)처럼 내놓고 있다.

- (24) a. "There are various ways to make a checking theory precise, and to capture generalizations that hold across morphology and syntax. Suppose, for example, that Baker's mirror principle is strictly accurate. Then we may take a lexical element, say the verb  $V$ , to be a sequence  $V = (\alpha, \text{INFL}_1, \dots, \text{INFL}_n)$ , where  $\alpha$  is the morphological complex  $[\text{R-INFL}_1 - \dots - \text{INFL}_n]$ ,  $\text{R}$  a root and  $\text{INFL}_i$  an inflectional feature. The PF rules only see  $\alpha$ . When  $V$  is adjoined to a functional category  $F$ (say,  $\text{AGR}_O$ ), the feature  $\text{INFL}_1$  is removed from  $V$  if it matches  $F$ ; etc. If any  $\text{INFL}_i$  remains at LF, the derivation crashes at LF."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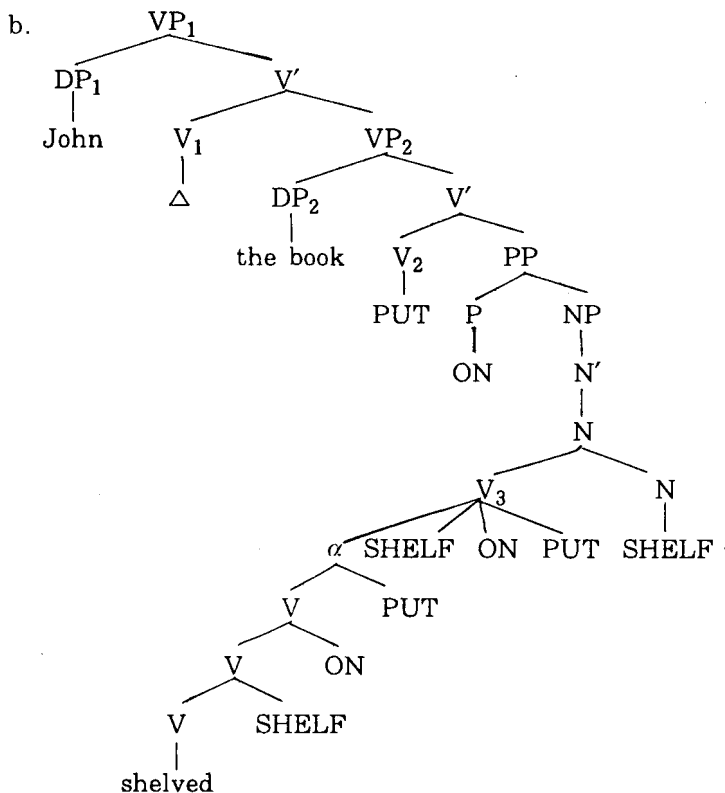
$\alpha$ 는 어근(R)에 여러가지의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구조로서, 이 접사들은 제각기 굴절소 자질(inflectional feature)들을 어휘부에서부터 지니고 나온다. 그래서  $\alpha$ 는 음성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굴절화된 동사가 되고 이  $\alpha$ 속의 굴절소 자질들은 상위 V아래에 다시 복제되어  $\alpha$ 내의 위치대로 Baker의 반사원리(mirror principle)에 맞추어 배열된다.<sup>15)</sup> 이 상위 V가 어떤 요소에 부착되고 그 곳의 자질들과 일치되면 이 상위 V속의 굴절소 자질은 하나씩 점검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이제 어휘 대체 규칙마저 없애기 위해 최소이론 속의 형태론적 자질 점검 장치 (24b)를 (23)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기로 하자.

15) Baker's Mirror Principle

Morphological derivations must directly reflect syntactic derivations(and vice versa).

(25) a. John shelved the book.



이들의 점검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V_3$  밑의 *SHELF*가 그 자리에서 *N SHELF*를 점검시켜 주고 자신은 사라진다. 둘째로, 남은 [ $V_3 + SHELF$ ]가 *ON*으로 인상되어  $V_3$ 속의 *ON*이 *P ON*을 점검 해주고 사라진다. 셋째로, 남은 [ $V_3 + ON + SHELF$ ]가 *PUT*으로 인상되어  $V_3$ 속의 *PUT*이 *V PUT*을 점검해 주고 사라지면 이 복합어는 추상적인 어휘 범주라서 보이지 않고  $\alpha$ 속의 *shelved*만 보이게 된다. 끝으로 [ $V_3 + PUT + ON + SHELF$ ]가  $V_1$ 으로 인상되어 동사 *shelved*가 갖고 있는 형태론적 자질인 [ $CD = 1, ID = 2$ ]를 자동 만족시켜 이 유도는(derivation) 이기성(Greed) 경제원리를 잘 준수하게 된다.<sup>16)</sup> 아울러 Hale & Keyser의 어휘 관계구조를 통사부에 (흡수)통합시켰으니 그들이 어휘 관계구조 속에서 (14) 처럼 구조적으로 포착하던 의미역을 통사구조인 (25b)에서도 그대로 포착 가능해져서,  $DP_2$  *the book*은 PP에서 서술화로 대상(격)(Theme)을 얻고,  $DP_1$  *John*은  $VP_2$ 를 보충어로 취하는  $V_1$ 에서 행동(격)(Agent)을 모두 구조적으로 얻게 된다.

이 어휘 점검에 의한 통합분석에서 우리가 가정해야 할 것은 AGR같은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y) 만이 형태론적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접사]자질을 갖는 추상적인 어휘 범주들 즉, *PUT*, *ON*, 등도 형태론적 점검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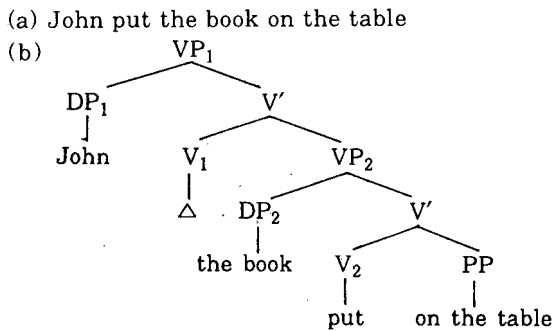
16) CD는 checking domain을 ID는 internal domain을 말하며 이들은 최소 핵 계층 구조 속에서 동사가 갖는 영역으로 나타내어 진다.

이로써 우리는 Hale & Keyser의 어휘 관계 구조를 통사부에 통합시켜서 그들이 얻지 못하는 통사구조의 통일성과 동사구내주어 가설을 포착할 수 있는 두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4. 맺는 말

본 논고는 최근 대두되는 최소이론 하에서 하나의 논항구조 이론을 설정해 보기 위한 한 시도이다. 우선 Larson의 논항구조 이론 중에서 유일 보어 가설을 받아들여, 그의 무제한 순환을 최소이론에서의 격 점검 장치와 서술화 이론을 논거로 하여 유일순환으로 처리하여, 그의 이론에서 포착하지 못했던 논항과 부가어의 통사적 구분을 얻고, 다음 Hale & Keyser의 논항구조 이론 중에서 어휘 관계 구조를 어휘 대체에 의한 통합 분석과 나아가 어휘 점검에 의한 통합 분석을 제시하여 어휘 관계 구조를 통사부에 통합시킴으로써 그들 이론에서 얻기 힘들었던 통사구조의 통일성과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동사구내주어 가설을 포착케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최소이론 하의 논항구조 이론은(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아주 간결해진 최소 핵 계층 구조(minimal X-bar structure)<sup>17)</sup>와 이 구조자체에서(모든 의미역은 아니더라도) 주된 의미역을 포착케 할 수 있는 설명력이 있는 이론임을 보여 주었다.



위 구문에서 *put*의 CD는 1개로서 DP<sub>1</sub> *John*이고, ID는 2로서 DP<sub>2</sub> *the book*과 PP *on the table*을 말한다.

17) 최소 핵 계층 구조는 아래의 구조로서 Larson의 유일보어 가설이나 Kayne의 Binary Branching 혹은 Hale & Keyser의 Unambiguous Projection과 같은 개념이다.

- (a) XP → ZP X'
- (b) X' → X YP

## 참고문헌

- Chomsky, N. (1991)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In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MIT.
- Chomsky, N. (1992)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s., MIT.
- Chomsky & Lasnik. (1991) "Principles and Parameters Theory", ms., Berlin.
- Hale, K & J. Keyser. (1991a) "On the Syntax of Argument Structure," ms., MIT.
- Hale, K & J. Keyser. (1991b) "On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al Expression of Syntactic Relations," ms., MIT.
- Hale, K & J. Keyser. (1992) "The Syntactic Character of Thematic Structure," ms., MIT.
- Hale, K & J. Keyser. (1993) "Constraints on Argument Structure," ms., MIT.
- Halle, H & A. Marantz. (1992) "Distributed Morphology and Pieces of Inflection," ms., MIT.
- Jackendoff, R. (1990) "Remarks and Replies," *Linguistic Inquiry* 21, 427-456.
- Kayne, R. (1984) *Connectedness and Binary Branching*, Foris Dordrecht.
- Larson, R. K.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 335-391.
- Larson, R. K. (1990) "Double Objects Revisited: Reply to Jackendoff," *Linguistic Inquiry* 21, 589-632.
- Yang, D. W. (1992a) 지배-결속이론의 최근 변혁과 그 전망, "김태옥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 Yang, D. W. (1993) "The Minimalist Theory and the Structure of Korean"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Grammar. Seoul, Korea.